

보도해명자료 (‘15.2.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/ 국토교통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, 車튜닝 관련 ‘유령단체’ 급조 의혹
(‘15.2.16, 문화일보)

1. 보도내용(요지)

- 산업부는 국토부와 튜닝산업 주도권 다툼 중 튜닝산업협회를 만들었지만 이사회 구성원 등이 불분명하며, 양대 단체 통합도 지지부진
 - 산업부 소관 튜닝협회 사무총장도 튜닝과 거리가 먼 중고차 거래업체 C사의 대표이사로 인가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

2. 등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산업부와 국토부는 ‘14.6.17일 ‘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’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으며, 아울러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(산업부)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(국토부)는 튜닝업계 역량 결집을 위해 통합기로 하였음
-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(산업부)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(국토부)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협회 통합을 추진하여 ‘15. 2. 6일 통합기로 합의하였으며,
 - 양 협회는 2월중 통합 T/F 팀을 별도 구성하여 협회 해산, 통합 정관 논의, 설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통합을 추진할 계획임

-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(KATIA)는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단체를 설립후 허가 신청함에 따라 산업부는 민법 제32조와 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’에 근거하여 ‘13. 9. 1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승인한 바 있음

* 제3조(설립허가의 신청) 1. 발기인 서류, 정관, 재산목록, 사업계획, 임원 예정자 서류, 창립총회 회의록

- 현재 튜닝산업협회 이사회의 임원진은 회장 1명, 이사 8명(비상임 4명 포함), 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
- 또한 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이 자동차 관련 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협회에 전념하고자 ‘15.1.29일자 폐업을 완료하였음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상준 과장(044-203-4320)
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김필수 회장(02-3453-6035)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윤진환 과장(044-201-3847)